

[보도자료] 쿠팡 착한상점,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협력 경북 농식품 소상공인 매출 340억원

2026. 9. 23.



- 2022년부터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협업 경북 중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 경북농식품진흥원 통해 110여개 업체·1200여개 농식품 선봬 전국 고객 만나며 매출 성장세

2026. 09. 23. 서울 - 쿠팡의 중소상공인 상생 전문관 ‘착한상점’이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하 경북농식품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경상북도 농식품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매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쿠팡은 경북농식품진흥원과 협력해 2022년부터 ‘착한상점’ 내 경북 농식품 기획전을 운영해왔다. 경북농식품진흥원을 통해 기획전에 참여한 경북 농식품 업체들의 2022~2025년 누적 매출은 340억원을 넘어섰다. 경북농식품진흥원은 농업인 교육과 경북 농식품의 판로 확대, 유통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경북농식품진흥원을 통해 참여한 110여개 경북 업체의 1200여개 농식품이 착한상점에서 전국 고객들을 만났다. 경북농식품진흥원 협력 사업 외에도 다수의 경북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쿠팡을 통해 농·수산물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전국 고객과 만나고 있다.

쿠팡 ‘착한상점’은 지방 농어촌과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상생 전문관이다. 쿠팡은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하며, 김·감·과메기 등 지역 특산물부터 식품·공산품까지 각지의 우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착한상점에서 ‘경북 우수 임산물 기획전’, ‘경북 농특산물 기획전’ 등을 진행하며 경북 지역 우수 상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앞으로도 ‘착한상점’을 통해 경북을 비롯한 지역 곳곳의 우수 상품을 전국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